데스크시각

오 주 승

'뒷북 행정', 광주시민은 피곤하다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떨다'. '뒷북치다'의 사전적 의미다. 요즘 광주시 행정이 꼭 그 꼴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일대 체육공원을 쇼핑객들의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린 대형할인점 허가 과정이다. 광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영락없는 '뒷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롯데마트 월드컵몰이 개장했다. 문제는 개장과 동시에 터졌다. 9천평에 이르는 대형쇼핑몰의 주차장 확보 면수는 불과 549면. 하루 평균 2만5천여명에 이르는 쇼핑객들의 차량으로 인한 주차 전쟁이 보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운동·휴식공간인 월드컵경기장 일대 체육공원은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다. 앞으로도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쾌적한 환경, 시 수익과 맞바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광주시의 준비 부족,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대형쇼핑센터 허가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차장 확보 면적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의 운영 적자를 메울 수익 사업에 눈이 멀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희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쇼핑센터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대가로 광주시에 지급하는 돈은 연간 45억8천만원. 단순히 계산하면 20년 동안 1천억원 가까운 돈이다. 월드컵경기장 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횡재에 가깝다. 광주시는 20년이 지나면 롯데마트 시설도 기부채납 받게 된다.

롯데마트 입장에서도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 롯데마트는 18일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1억원대 매출이란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광주시와 롯데마트의 이해가 일치하는 이런 셈법 속에 시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광주 전국체전 등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대형 이벤트가 열릴 때의 혼란은 불보 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광주시와 롯데마트 간 양해나 합의는 전혀 없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무대인 월드컵경기장이 쇼핑센터의 부속물 신세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다. 금년 체전 때 전국에서 온 선수·임원진은 월드컵경기장과 쇼핑센터 간의 부조화, 그리고 극심한 체증과 혼잡을 목도할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뒤늦게 월드컵경기장 주변 주차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교통영향평가 때 현재 설치된 549면만 확보해도 된다고 결정된 상태다.

민간 기업인 롯데마트가 공적 목적에 동의해 주차 면수를 갑작스럽게 늘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광주시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시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에 매달리거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광주시 관계자들은 2005년 롯데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예상하고도 눈을 감았다면 '직무유기'다.

무능, 혹은 직무유기

광주시의 뒷북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발도면 유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문제의 세하택지개발은 전면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하다.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사건 역시 광주시와 산하 공기업의 잘못된 행정이 빚은 일이다. 광주시는 당초 세하지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만 해도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가 철회 요구가 빗발치자 백지화 쪽으로 선회했다. 이러면서 시정의 신뢰성은 추락했다.

광주시의 잇따른 '뒷북 행정'이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 대형교통유발시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시설 주변은 항상 북새통이다. 신흥 택지개발을 하면 모텔과 술집부터 들어서는 것이 광주시 개발행정의 전례다. 잘못된 행정이 수십년 반복되지만 매번 사과의 말뿐,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뒷북은 이제 그만 쳤으면 한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사설

'먹구름' 지역경제 장기침체 현실화 되나

지역경제가 정말 걱정스럽다. 올해도 산업 활력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경기 전망' 결과에 따르면 58.0%가 '극심한 침체 국면', 34.0%는 '정체 국면'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흑자'를 예상한 경영인은 18.4%에 불과했고 36.9%는 '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경영인 대부분이 올해 경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경영인의 투자의욕 감소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경영인(40.5%)이 '확대하겠다'는 경영인(19.0%) 보다 2배 이상이나 많았다.

이처럼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떨어져선 지역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늘고 소비 지출도 증가하는 등 선순환 고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역 경영인들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노사관계 불안정성, 원자재가 및 환율 상승을 기업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했다. 원자재가와 환율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잘못된 정부 정책과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해서야 되겠는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과 소비, 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여 올해 국내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 국내 산업의 '주요 먹거리' 업종마저도 전달 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해 이러다 우리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경기가 내려앉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투자를 되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대선 놀음'에나 빠져들 때가 아니다.

대형 할인점 부대시설 전락한 시민공원

광주시가 대형 할인점에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개장한 롯데마트 월드컵몰에는 하루 평균 2만5천여명이 몰리면서 일대가 쇼핑객의 차량으로 북새통을 빚고 있다. 주변 공용주차장은 물론 통행로까지 차량이 점령할 정도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들의 대표적 체육공원이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조깅이나 산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몰려와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기며 레저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쾌적함이나 여가생활보다는 대형 할인점에 혜택을 준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롯데마트측은 법정주차장인 509면보다 많은 549면의 전용주차장을 확보했다. 문제는 다른 대형 할인점들이 법정주차장의 3~4배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롯데마트측은 홍보전단에 전용주차장보다 5배 이상 많은 '동시 주차 3천700여대'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했다. 이 주차면적은 염주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등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주차장을 모두 합쳐야 확보할 수 있다. 주차장 확보 면적을 대폭 부풀린 것이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연간 45억8천만원의 임대료는 큰 돈일 수 있다. 20년 후에는 시설까지 기부체납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입을 피해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 등은 또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가.

눈앞의 수익에 멀어 휴식공간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의 대표적 체육공원이 대형 할인점의 부대시설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는 할인점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 상 욱

담배 이야기

'담배는 사람을 여유 있게 한다. 연기와 소리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제법 그럴듯한 말이다.

이십 세 때 주변의 유혹과 호기심 그리고 이 말에 반해서 '아리랑'담배 한 갑을 사면서부터 나의 흡연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기침, 가래가 점점 심해지자 식구들이 나도 나지만 자기들도 담배의 피해자라며 강력하게 금연을 요구해 왔다. 이른바 간접 흡연자들의 시위였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작년 첫날부터 실행에 옮겼는데 세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을 45년 만에 만나 한잔 하며 옛 추억을 더듬다가 그만 그 친구의 담배를 피우고 말았으며 그 뒤 계속 이어져 식구들의 맹비난을 받아왔다. 나는 무엇이라도 먹은 후와 화장실 갈 때는 당연히(?) 피웠지만 전화를 걸거나 받은 후 나도 모르게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도 있었다. 손자 놈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며느리 눈치를 느껴야 했고 직장에서 돌아온 딸은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을 연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무심결에 담배를 피우면 옆 사람이 힐긋 쳐다보며 자리를 뜬다. 모임에 나가면 아직도 안 끊었냐며 질책을 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웰빙'을 외친다. 홍콩은 '세계 유일의 완전 금연 도시'로 선포되었다. 점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렇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담배는 원산지가 남미로 추정되는 가짓과에 속하는 일년초다.

흡연 시 가장 해로운 물질은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이며 타르에는 2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전체 암의 30-40%는 담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정설이다. 일산화탄소는 신진대사에 장애를 주고 조기 노화 현상을 일으키며 니코틴은 아편과 마찬가지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이다. 흡연이 백해무익한 줄 알면서도 쉽게 못 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금연 하는 바람에 담배 판매량이 많이 감소하지만 6,7월이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고 한다. 그만큼 장기간 금연이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과의 싸움이다. 유혹과 인내의 대결이다. 코미디언 고이주일 선생의 금연 호소, 텔레비전 화면에 자주 나오는 암 걸린 폐와 한국은 매년 5만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보도를 자꾸 연상해 보면 어떨까.

아무튼 나는 정해년 첫날 금연에 재도전했다. 오늘로 작심 삼십일은 통과한 셈이다. 작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꼭 금연에 성공해서 내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가족들에게 과시하고 싶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청소년들이여, 제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라. 담배는 그저 건강의 적일뿐이다."

〈수필가·2005년5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독자마당

대학 신입생에게도 등록금 분납제 적용해주길

이제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합격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기쁨은 잠깐이고 이내 입학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꺼번에 400만~500만원의 목돈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부유하거나 직장에서 학자금보조가 나오는 가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직접 마련해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수백만원의 거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미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1~2차례분납해서 받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이는데 신입생일 경우 난감하기 짝이 없다.

학자금융자 신청하기도 쉽지 않고 신청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다소 업무상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신입생에게도 가정환경과 처지를 감안해 등록금 분납제를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대학의 고충도 없지 않겠지만 국가경제와 가계가 어려울 경우 누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민층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헤아려 주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기중에 한두 차례 더 징수하면 되리라고 본다.

만약 신입생 전부에게 시행하기 힘들다면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감안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해서 이들만이라도 분납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해마다 반복되는 교복 가격 거품 해결책 없나

신학기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비싼 교복값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70만원대에 육박하는 교복이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깨가 늘어진 학부모들에게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주고 있다.

웬만한 성인 양복보다 학생 교복이 왜 비쌀까? 유명브랜드 업체에서 유명연예인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광고로 학생들을 유혹하다보니 이런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인 학부모의 몫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교복 거품 빼기운동'과 함께 '교복 나눔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공동구매로 가격 거품을 뺀다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여부 및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고 하니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교복 가격문제가 이번에는 시정되기를 기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교복값 문제를 이대로 두면 언제 70만원이 80만원으로, 또 100만원으로 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학생, 학부모가 교복업체들의 상술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공무원 시험 준비 문제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3년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선배가 찾아와 "더 늦기전에 하루빨리 공무원 시험준비하는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요즘은 아예 입학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제 곧 4학년이 되는 지방대생의 처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교육대학이나 의대와 같은 특수한 몇몇 분야의 전공자를 제외한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선호하는 것 같다.

4년동안 공부한 자신의 전공은 외면하고 획일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학생들, 너무 비생산적 아닌가.

대학이 거대한 공무원 양성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부나 대학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는 관람객에게만 징수해야

올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 일부 사찰이 국립공원 입장료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등산객들은 절에는 들어가지 않고 또 문화재 관람도 하지 않는데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다.

물론 정부가 문화 유산으로 지정만 해놓고 유지·관리비를 보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글자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인데 관람도 하지 않는 등산인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나마 매표소 운영을 이유로 갑자기 관람료를 인상,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문화재 관람객들에게만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한다.

▲김동욱·광주시 동구 산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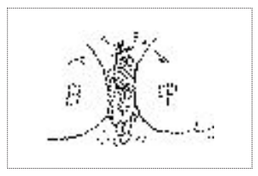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넛크래커 현상

넛크래커(nutcracker)는 호두를 양면으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다. 주로 우리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인용되면서 넛크래커 현상으로 발전됐고, 다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 미국의 컨설팅사인 부즈 앨런 & 해밀턴이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보고서에 처음 사용했다. 보고서가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에 협공을 받아 넛크래커 속에 끼인 호두처럼 되어 변하지 않으면 깨진다"고 한 데서 유래된 것. 그동안 한국은 일본 기술을 복제하느라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빠르게 따라 오는 중국의 값싼 제품에도 대처할 수 없다는 빈정거림도 깔려 있었다.



이후 넛크래커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품질 면에서 뒤지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가격 면에서 뒤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최고 정보기술 국가로 발돋움, 역(逆) 넛크래커 현상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과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 끼여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업규모와 생산성, 기술혁신 등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서 일본과 중국 모두 또는 양국 가운데 어느 한쪽에 밀렸다며 적극적인 투자, 기술혁신 등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분석 대상 기업들 가운데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은 일본이 66개인데 비해 한국은 18개, 중국은 16개를 차지했으며 자산규모 100대 기업은 일본 66개, 중국 19개, 한국 15개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이윤액 기준 100대 기업 역시 한국 25개, 일본 39개, 중국 36개 등으로 한국이 가장 열세였다.

각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한 시점임을 일깨워준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